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식품 대외교역 변화 동향

— 제3국시장에서의 한·일간 상품대체 변화를 중심으로 —

I. 일본의 농수산물식품 시장 및 대외교역 변화 ----- 3

II.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일본시장 수출동향 ----- 12

III.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주요 수입국 동향 ----- 17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 EU)

〈부록〉

1. '10~'11년 일본의 농수산물식품 수입동향 ----- 25

2. '10~'11년 일본의 농수산물식품 수출동향 ----- 27

3. 2011년 싱가포르 시장의 주요품목별 한·일
경쟁 상황 ----- 28

4. '12.3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현황 ----- 30

요 약

- ❏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11.3.11)이후 '11년 일본의 농수산물식품 대외수출은 전년대비 8.3% 감소하였고, 특히 낙농품, 수산물의 수출이 부진하였음
 - 산리쿠 근해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어 전복생산기반(전국 40%)이 거의 파괴됨
 - 향후 2~3년 이내에 피해지역 해안의 자연산 전복, 양식 넙치 등과 같은 해저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급격히 대두할 가능성 있음
 - 주류, 녹차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였음
- ❏ 한·일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한국산으로 대체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임(한국산 수출 50.9% 증가, 일본산 41.6% 감소)
 - 중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시행하여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판매 매대에서 한국산이 일본산을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남
 - 바이어, 경소상, 유통업체 등 대부분 일본산 취급비중 감소($\Delta 40\% \sim \Delta 95\%$)
 - 청주, 된장, 간장 등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일본풍 중국산 현지상품으로, 스낵류, 음료류, 면류 등은 한국을 비롯한 타국산으로 대체됨
- ❏ 홍콩의 일본산 식품수입은 소폭감소($\Delta 2.3\%$)하였으나 한국산 수입은 대폭증가(21.8%)
 - 원전사고이후 한국식품은 일본식품의 대체식품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타 주요 수입국에 비해 물량이 매우 적고 시장진입단계로 인지도가 부족해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음
- ❏ 대만은 전통적으로 일본식품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매우 강해 선호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음
- ❏ 미국, EU의 경우 대지진 초기 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 소비가 주춤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거의 원상회복 단계에 이름
- ❏ 한국은 대지진 영향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가 있었던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시장점유 지속성 유지와 유통망 확대 등 공격적 마케팅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

일본의 농수산물시장 및 대외교역 변화

■ (경제) 2011년 경상수지 흑자가 44% 감소하고 경제성장률 하락 ($\Delta 0.9\%$) 및 31년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엔화가치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일본경제에 대지진으로 인한 산업시설 피해는 수출 기업 생산차질 등 더 큰 피해를 파급하였음
- '12년 2월 일본 부흥청 발표에 의하면 피해지역 복구율은 철도(98%), 항만(73%), 도로(100%) 등은 양호하지만 방사능 유출지역 쓰레기처리(5%), 농지복구(35%)는 난항이 계속됨
- 원전 생산전력 중단으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생산업체의 생산 비용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 일본국민의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짐
 - 대지진 1년 이후 닛케이 MJ에서 전국 3천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설문결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임

- ✓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71.5%), 5명중 1명이 식품 구입처를 바꾸었으며 74%는 안전한 식품이면 가격이 올라도 좋다고 응답
- ✓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과 고령층 60대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음
- ✓ 피해지역 3개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중 후쿠시마의 식품안전의식이 특히 높아졌음
 - 피해지역의 거주민들은 식품구입처를 대형슈퍼마켓(45.7%), 생활협동조합(34.3%)으로 구입처를 바꾸었다고 응답. 안전한 식재료라면 비싸도 구입 하겠다며 80%가 그렇다고 응답
- ✓ 가장 걱정되는 식재료는 채소 및 과일류(85.1%), 쌀(59%), 어패류·건어물(58%)로 응답했으며 국가의 검사내용에 대한 발표를 불신하는 사람도 54.9% 차지

■ (수입) '11년 농수산물식품 수입은 8조 652억엔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

● 엔고 영향으로 달러 기준 환산시 전년대비 24.8% 증가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구 분	단위	2009	2010	2011	증감률 (‘11/‘10)
농림수산물	10억엔	6,666.1	7,119.4	8,065.2	13.3
	US억달러	712.8	808.2	1,008.5	24.8
－ 농축산물	10억엔	4,560.9	4,828.1	5,584.2	15.7
	US억달러	487.7	548.1	698.3	27.4
－ 임 산 물	10억엔	808.5	920.4	1,026.4	11.5
	US억달러	86.5	104.5	128.3	22.8
－ 수 산 물	10억엔	1,296.7	1,370.9	1,454.7	6.1
	US억달러	138.7	155.6	181.9	16.9
* 연평균환율	(엔/\$)	93.52	88.09	79.97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 한국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13.3% 증가하여 전년도에 이어 11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전년도와 같은 2.3%를 기록함

● 대지진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일부 가공식품 및 수산물임

대지진 원전사고 영향으로 수입증가 주요품목

구 분	2010		2011		증감율		주요 수입국(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위	2위	3위
맥주	29,429	4,572	42,370	5,411	44.0	18.3	아르헨티나 1,330	한국 930	멕시코 576
생수	418,975	23,352	589,575	28,297	40.7	21.2	프랑스 17,622	미국 5,432	한국 1,504
전복	1,854	5,796	2,027	6,579	9.3	13.5	한국 4,376	호주 1,250	중국 388
굴	4,201	2,476	5,230	3,178	24.5	28.4	한국 2,925	뉴질랜드 117	미국 53
패주	598	683	897	1,027	49.9	50.4	한국 745	중국 263	필리핀 19
김	475	828	868	1,462	82.7	76.5	한국 1,152	중국 310	－
미역	25,595	6,804	42,685	11,599	66.8	70.5	중국 8,570	한국 3,027	아르헨티나 2

- 곡물류는 밀(47.8%), 옥수수(23.1%) 등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쌀도 물량 11.7%, 금액 2.8% 증가
- 과실류는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7.1% 증가한 가운데, 포도(물량 22.1%, 금액 27.1%), 감귤류(물량 95.4%, 금액 86.1%) 등이 크게 증가하고 밤(물량 Δ 7.4%, 금액 Δ 2.0%)은 감소
- 채소류는 전체적으로 6.5% 증가하였으며, 수박(물량 282.4%, 금액 194.8%), 배추(물량 407.3%, 금액 431.5%), 새송이버섯 등 기타버섯(물량 53.9%, 금액 22.9%)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파프리카(물량 5.3%, 금액 4.3%)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토마토(물량 Δ 0.3%, 금액 Δ 11.2%)는 감소
- 가공식품은 지진피해의 영향으로 주류(물량 20.9%, 금액 8.3%) 등 주류와 생수(물량 40.7%, 금액 21.2%), 유채씨유(물량 255.8%, 금액 245.6%)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맥주는 이온의 한국산 PB상품 도입 등에 힘입어 18.3% 증가
- 수산물은 참치류가 세계 어획량 감소로 수입 물량이 12.0% 감소, 금액은 6.9% 증가하였고 대구(22.4%), 꽁치(57.2%) 등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
 - 주산지의 양식장 피해의 영향으로 굴(물량 24.5%, 금액 28.3%), 전복(물량 9.3%, 금액 13.5%) 수입이 증가
 - 해조류도 방사능오염에 따른 수요증가로 긴급 IQ확대에 따라 김(물량 82.7%, 금액 76.5%), 미역(물량 66.8%, 금액 70.5%)이 대폭 증가
 - * 해조류 품목의 한국산, 중국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
 - 전복, 패주 수입은 대폭 증가, 바지락과 한국산 활넙치 수입은 대폭 감소
 - * 활전복 수입증가(한국산 31%) / 패주 수입증가(한국산 39%, 중국산 125%)
 - * 건조김 수입증가(한국산 70%, 중국산 104%)
 - * 미역 수입증가(중국산 55%, 한국산 139%)
 - * 바지락 수입감소(중국산 Δ 22%, 한국산 Δ 34%)
 - * 활넙치 수입감소(한국산 Δ 31%)

■ (수출) '11 일본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4,512억엔 전년대비 8.3% 감소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단위 : 십억엔)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률('11/'10)
농림수산물	445.4	492.0	451.2	△8.3
- 농축산물	263.7	286.5	265.2	△7.4
- 임 산 물	9.3	10.6	12.3	16.5
- 수 산 물	172.4	195.0	173.7	△10.9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 방사능 오염 우려로 분유 등 낙농품과 수산물이 수출이 부진하였으며 과실류는 작황부진까지 더하여 수출이 저조
- 해외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주류, 농차 등 일부 가공품은 오히려 증가

대지진(원전사고)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주요품목

(단위 : 톤, 백만엔)

구 분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분유	9,438	14,163	3,380	4,726	△64.2	△66.6
과자류	27,737	25,872	24,061	23,070	△13.3	△10.8
간장	20,088	3,969	18,873	3,651	△6.1	△8.0
사과	21,075	6,409	18,205	6,500	△13.6	1.4
콩치	60,382	5,132	13,292	1,407	△78.0	△72.6
명게	7,277	1,453	990	216	△86.4	△85.2
연어	65,166	17,978	22,404	6,700	△65.6	△62.7
명태	63,478	7,733	40,082	4,156	△36.9	△46.3
패주	2,648	12,385	1,983	9,428	△25.1	△23.9

- 2011년 수산물 수출은 대지진 재해, 원전사고 등으로 크게 부진하여 물량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42만 4천톤, 금액은 11% 감소한 1,737억엔
- 주요품목 모두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냉동 콩치(△72.6%), 명게(△85.2%), 연어(△62.7%) 명태(△46.3%) 감소도 두드러졌음

- 건조해삼은 감소비율은 비교적 낮으나($\Delta 7.9\%$) 감소금액은 10억엔으로 가장 컸음
- 가리비(물량 $\Delta 25\%$), 조제전복(물량 $\Delta 13.3\%$), 오징어, 방어, 가다랑어류 통조림 등의 수출금액이 증가하였음

- 콩치는 러시아 수출이며 명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수출을 나타냈으며 건조해삼은 홍콩 수출이 17% 감소하고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함

■ (생산유통) 방사능 오염 우려로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산 기피현상 및 오염 우려가 적은 규슈, 홋카이도 등 특정산지로 수요 집중

* 후쿠시마 인근지역 : 이바라기, 도치기, 사이타마, 군마, 이와테 등

- (채소류) 산지대체, 대외수입 등으로 도매시장 유통물량은 전년수준 유지하였으며, 가격은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
- (화훼류) 카네이션 등이 일부 미야기현 산지에 피해가 있어 생산량에 영향이 있었으나 전국적 산지 분포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수급에 차질은 없었음
 - (소국) 여름 소국산지 비중이 큰 이바라키, 후쿠시마현 등은 정전, 방사능 문제 등으로 인해 파종준비가 늦어져 일본 공급 차질
 - (장미, 백합 등) 지진 피해이후 자숙무드가 계속되어 결혼식, 연회 등의 수요가 저조하여 장미, 백합 등의 공급 감소 단가하락으로 어려운 시장상황 계속
- (과실류) 감귤류와 배, 단감 등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으나, 사과·수박은 5~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생산저조로 가격 상승
- (수산물) 지진 피해지역이 가리비, 굴, 멧게, 다시마, 미역 등 양식 수산물의 주산지로서 이들 생산량이 대폭 감소
 - 조방(常磐)·산리쿠(三陸) 근해어장을 구성하는 이바라기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의 입하품목 생산량이 급감 현상 발생

-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미역(△20%), 전복(△30%), 가리비(△20%), 연어(△60%), 꽁치(△30%), 가다랑어(△40%) 등임

* '11년 공식통계발표전으로 해당지역의 업계 전망임

- (전복) 특히, 산리쿠 근해의 전복 어획지가 큰 피해를 입어 전복 생산기반이 거의 파괴됨(전국 40%생산차지)
- 향후 장기간에 걸쳐 조방·산리쿠 수산물은 판매가 곤란한 상황이고 향후 2~3년 이내에 산리쿠 해안에서의 자연산 전복, 넙치 등의 해저 바닥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급격히 대두될 가능성 있음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주요품목 수산물 생산량(2010)

(단위 : 톤)

품 목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아오모리현	소계	비중	전체
가리비	6,673	12,822	—	89,838	109,333	49.8	219,649
굴	10,536	45,818	—	—	56,354	24.2	233,254
멍게	1,093	8,663	—	479	10,235	99.6	10,272
다시마	14,517	1,394	—	58	15,969	36.9	43,251
미역	19,492	19,468	—	23	38,983	74.4	52,393
넙치	177	344	734	1,339	2,597	33.6	7,701
전복	283	141	25	45	494	33.8	1,461

자료 : 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대지진과 쓰나미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내륙부에 가공·냉장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속출. 또한,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시설을 도입하거나, 풍문피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를 기업차원에서 도입하는 경우도 많음. 금번 피해업체는 대지진으로 조업이 일시 정지되어, 비피해지역 업체에게 판매처를 잠식당하고 있음

2012년 일본 주요 수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전망

품 목	품목별 생산동향 및 시장전망
참치(-)	큰 영향은 없음. 자연산 참치는 주 생산지가 원양임 일본 내 내수물량을 충분히 일본원양어선이 공급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
넙치(↓)	산리쿠(三陸), 조방(常磐) 근해의 생산이 급감. 지진이후 1년이 지나 일부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지진 이전의 절반이하로 전망 됨
전복(↓)	산리쿠(三陸)어장이 크게 피해를 입어 생산기반이 거의 파괴되어 생산량이 급감. 향후 1~2년간 은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 전복은 한국산으로의 대체수요 지속적으로 발생 (시장점유율 10% 상승)
굴(↓)	동북산 굴 출하량 감소. 전국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던 미야기현은 지진전의 10분 1정도로 생산되고 있으나,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시장점유율 하락세. 한국산 굴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붕장어(↓)	산지인 미야기현 오시카(牡鹿)반도의 어획이 격감. 또한, 후쿠시마현 소마(相馬) 도 일대 산지이지만, 원발사고 영향으로 조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황
미역(↓)	금년 미야기현, 이와테현산 모두 사고전의 70~80%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현지 가격은 유래 없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 소비자 수요는 상당히 많음
해조류 및 가공품(↓)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수요증가로 단기적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물 IQ물량 확대 선결요함. 향후 원전사고에 대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일본 내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고등어(↓)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치바현 초시(銚子),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어획이 되고 있어, 대지진의 영향은 경미
붕장어(↓)	산지인 미야기현 오시카(牡鹿)반도의 어획이 격감하였으나, 주산지인 나가사키산이 원전사고 영향 및 연관성이 적어 별다른 동요는 없음. 한국산은 안전성과 품질면 에서 모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일본내 수요가 매년 감소세

* 생산량감소 (↓) 생산량 예년수준(-)

- 대지진에 의한 수산물 생산에서의 피해는 수년 내에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화가 예상되는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문제에 소비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향후 장기간에 걸쳐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 이하라도 조방(常磐)·산리쿠(三陸) 수산물은
판매가 곤란한 상황

■ (소비트렌드) 보전성이 높은 염건(鹽乾)류, 통조림, 레트로트 상품 주목

- 전력부족으로 불을 사용하지 않는 수산물 반찬 매출이 증가하고, 대지진 계기로 가족 유대가 강화되어 가정용 수산가공식품(조미김, 연육제품 등)매출증가 추세
- ‘12. 3월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실시한 소비자트렌드 조사결과, 식품산업 전반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저가격’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임
 - 원전사고지역의 신선식품의 구입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약 78%가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본산 원료 가공식품류는 약 56.5%(전년대비 △4.2%)가 안전성을 바탕으로 구입의향을 가짐
 - 수입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59.4%가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중 어류(36.9%), 수산가공류(36.1%)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소비자가 많았음
 - 수입산 구입이유에 대한 질문결과 어류는 48.6%, 수산가공류는 46.4%가 가격이 저렴하기(일본산보다 10%이상) 때문에 구입한다고 응답

■ (시장전망) 피해지역 복구에는 장기간 소요예상, 수입증가, 소비침체

- 일본 대지진(‘11.3.11)으로 원전사고 인근 지역 주요 신선 농수산물 생산차질로 관련품목 수입증가 예상됨
 - 수입증가예상품목 : 오이, 토마토, 멜론 등 신선 농산물, 어류 및 양식 수산물인 굴, 미역, 생수, 라면 등 가공식품
- 지진피해 복구관련 일본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예상으로 동북지역 시장개척 가능성 증대됨
- 또 다른 대규모 지진이 향후 나타날 가능성 발표로 국민전체 위기감 고조 및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세금인상 우려 및 장기적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침체, 고용불안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소비세 2014년 8%, 2015년 10%로 인상추진(현행 5%)
 - 소비위축에 따른 저가격 제품 구매 경향의 심화 전망

■ (수입업체) 대지진 이후 바이어 및 수입업체 대응 변화와 전망

- 지진피해 및 방사능 유출로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동북지역산 농수산물 기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체산지 확보노력 및 수입산 취급확대 추세
-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공동으로 창출하자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품으로 가족이나 사회, 지역과의 밀착성, 관계강화, 산지직거래 등이 확대
- 방사능 우려로 생산자 이력제 상품, 산지 제휴에 의한 상품 발굴 확대
- 생협 등은 독자적인 식품첨가물 기준을 완화하여 긴급상황 대비 안전성보다 공급우선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
- 원전사고 이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일본 소비자의 방사능오염 수산물에 대한 큰 동요는 없는 편임
 - 향후 2~3년 이내 산리쿠 해안에서의 자연산 전복, 넙치 등의 해저 바닥 수산물의 생육과 유통시 안전성 문제가 급격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산 수산물의 안정적 물량공급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 예상
- 유통업체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처 발굴 노력 중으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방사능에 대한 큰 반향(수입산 선호경향 등)은 약함
 - 원전사고지역의 수산물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조방(常盤)·산리쿠(三陸) 근해어장에서 생산된 어종은 방사능 검사없이 판매 엄금
 - 전복, 미역, 김 등 해조류를 중심으로 전년 원전사고로 인하여 물량 확보가 힘들었던 품목위주로 납품처의 다원화(여타 지역산, 수입산)를 추진
 - 피해 품목은 수입산(한국산 등)을 구매할 예정이나, 일본 소비자 대상 한국산에 대한 안전성 홍보 및 일본에서 필요한 물량 및 규격 생산이 선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II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일본시장 수출 동향

■ 2011년 일본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사상 최고치 기록, 전년대비 26.1% 증가한 24억 달러

- 제3맥주(138백만 달러), 막걸리(48) 등 주류 및 파프리카(66), 김(58) 등 수출호조
- 지진직후 라면(52), 미역(28), 생수(15) 등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넉치(40), 장미(25), 국화(11) 등 수출은 감소하였음

주요 국가별 수출증감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수출액	2,374.2	1,380.0	599.8	242.7	305.5	261.0	1,031.9	362.9
(비중)	30.9	17.9	7.8	3.2	4.0	3.4	13.4	4.7
전년대비	26.1	75.3	15.6	3.0	25.3	23.5	43.4	9.1

※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 전체수출은 30.8% 증가한 7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

- 신선(16.2%), 가공(36.2), 수산(28.3) 등 전 부류에서 고르게 증가

주요 품목의 일본시장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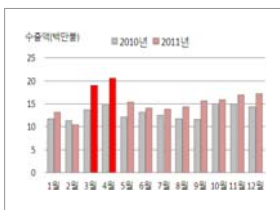
- 채소류 : 전년대비 13.3% 증가한 101.3백만 달러
 - 파프리카는 대지진 발생에 따라 신선농산물 오염 풍문, 한국산 파프리카 판촉전 등 한국산 적극적 마케팅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65.7백만 달러
 - 토마토, 멜론, 새송이버섯 역시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산 농수산물 수요 확대 및 판촉강화에 따라 수출증가

* 토마토(70.1%), 멜론(9.3), 새송이버섯(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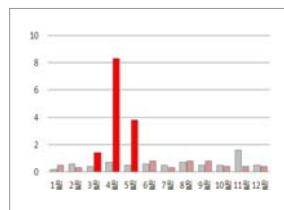
- 김치 : 전년대비 4.9% 증가한 86.8백만 달러
- 인삼류 : 전년대비 11.1% 증가한 33.1백만 달러
- 화훼류 : 전년대비 8.8% 감소한 73.2백만 달러
 - 입학 및 졸업 등 화훼류 소비 성수기인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행사축소 등으로 장미, 국화 등 주요품목 수출 감소에 따라 전체적 대일 수출 감소 / * 장미($\Delta 26.1\%$), 국화($\Delta 19.0$), 선인장($\Delta 51.0$)
- 과실류 : 전년대비 30.3% 증가한 25.8백만 달러
 - 유자차는 한류에 따른 한식인기에 따라 전년대비 33.1% 증가한 12.4백만 달러
- 가금육 : 전년대비 67.8% 증가한 12.2백만 달러
 - 한류에 따른 일본 매스컴의 한국식재료 보도회수 증가 등에 따라 대표 품목인 삼계탕의 미용효과, 건강식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증가
- 가공식품 : 전년대비 47.7% 증가한 1,005.5백만 달러
 - 제3맥주(캔)와 맥주
 - 일본 경기침체로 인해 저가의 제3맥주 수요가 증가했으며, 또한 대지진 발생('11년 3월)에 따른 식당가, 주점 등 외식문화 소비침체로 일반 가정에서 소비가 많은 제3맥주(캔) 수출확대
 - 아사히, 기린, 삿포르 맥주 공장의 지진피해로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대체 공급 증가
 - '11년부터 일본 이온그룹에 맥주 OEM 공급이 시작되면서 대일 수출은 전년대비 3,190.6% 증가 / * 제3맥주(42.9%), 맥주(3,190.6)
 - 막걸리는 일본내 대형주류업체 연계한 장수막걸리 시장진출, 한류 스타 활용한 프로모션 강화를 통해 전년대비 210.7%상승한 48.4백만 달러 기록

- 한류 붐을 통한 한국식문화 전파, 대형유통업체 판촉전, 식품기업 유망 신상품 유통업체 소개 등을 통해 주요품목 모두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였음
- 라면(187백만불), 생수(18) 등 구호품 성격의 품목은 대지진직후 수출급증
- 기존 과자류 최대 수출품목인 비스킷류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구호 물품 및 대체식량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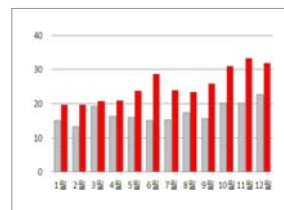
주요 가공식품 월별 수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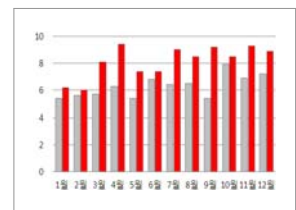
라면



생수



커피조제품



비스킷

* 과자류(44.1%), 라면(35.2), 고추장(25.8), 냉면(42.5) 등

● 수산식품 : 전년대비 15.6% 증가한 993.4백만 달러

- 참치는 어획규제 강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단가상승으로 수출액은 다소 증가

* 참치 : ('10) 165.5백만달러 → ('11)177.5백만달러, 전년대비 7.2%

- 주요 수출품목인 넙치는 쿠도아충 관련하여 수출 감소하였으나 봉장어는 수출이 증가하였음

* 넙치(40.2백만달러, △25.9%), 봉장어(52.2백만달러, 27.7%)

- 전복 및 굴은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피해로 생산이 급감하여 한국산 대체 수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전복(51.1백만달러, 42.4%), 굴(38.0백만달러,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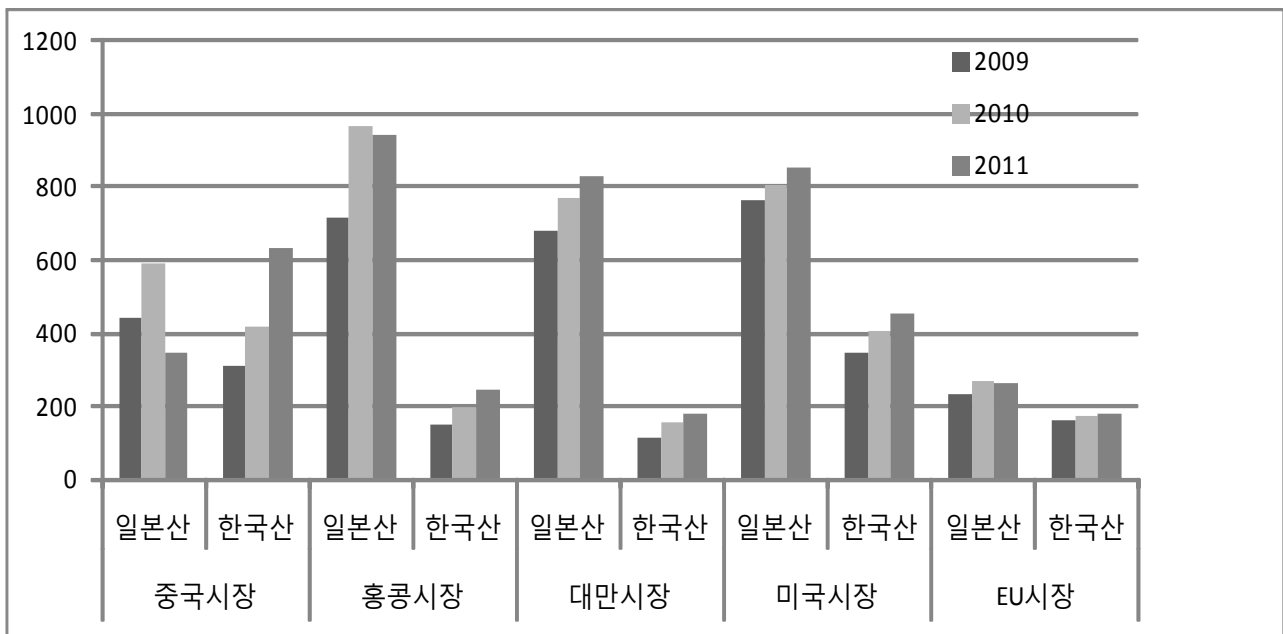
- 미역은 일본 지진에 따른 현지 공급량 감소로 일본 수요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14.1% 증가한 40.8백만달러
- 한류 붐에 따른 한국산 조미김의 인기상승으로 김은 전년대비 63.6% 상승한 58.0백만 달러 달성
- 표고버섯 : 주력 시장인 일본의 수요감소 등으로 건표고 수출이 감소
- 송이버섯 : 작황부진, 내수 증가 등 수출채산성 악화로 주력시장인 일본에 수출이 대폭 감소

■ 동일본 대지진과 한국산의 세계수출 동향

- 파프리카는 주 수출국 일본의 대지진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을 받았으나 캐나다 등 신시장 개척과 일본 소비촉진 활동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65.9백만 달러 수출
- 수산물
 - ‘11년 수산물 수출은 참치·오징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 및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연체류(굴, 전복) 등 일본 지진에 따른 對일본, 중국 등 대체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한 2,307.8백만 달러 수출
 - 김 : 일본 대지진이후 일본산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우려 및 한국산 인지도 상승 등에 따른 미국, 중화권 등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53.5% 증가한 161.5백만 달러
- 면류
 -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국수(우동), 기타파스타(만두)로 일본 지진 여파로 라면수출이 증가하고 해외시장에서 일본산 대체품으로서 한국산 면류수요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20.9% 증가한 290.3백만 달러 수출

- 주요국별 일본산과 한국산의 농수산물식품 수입금액을 보면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 일본산이 감소하고 한국산이 증가하였음

국별 일본산 vs 한국산 농수산물식품 수입금액 변화



Ⅲ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주요 수입국 동향

주요국별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검역규제 현황

국가	재해 인근 지역산	그 외 지역산
중국	10개현 수입금지	관련 증명서 필수
홍콩	4개현 수입금지	샘플링 검사
대만	5개현 수입금지	샘플링 검사
싱가포르	11개현 수입금지	모든 제품 방사능물질 검사후 통관
미국	3개현 검사 후 통관보류 가능	샘플링 검사
EU	12개현 샘플링 5~10%	원산지 표기

- 일본 대지진이후 각국별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검역규제 강도를 보면
중국, 싱가포르 > 홍콩, 대만 > 미국, EU 순임

주요 수출국별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수입증감률 및 최근동향

국가	일본산	한국산	소비자 거부감	유통매장
중국	△41.6%	50.9%	민감소비자 기피여전(*분유) 하나 기존 신뢰 높아 소비 회복 중	까다로운 수입규제로 수입품목 수가 늘지 못하여, 진열품목 부족함
홍콩	△2.3%	21.8%	신선 농수산물, 유제품 대폭감소 후 회복세 유아용 분유 불신은 여전	타국가산 및 일본 타지역산 주력 품목 수 적어도 물량증가 올해는 인지도 제고노력
대만	8.0%	14.8%	일본산 신뢰 여전 사고지역 이외 상품으로 대체되어 일본산 선호여전	일본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평년수준으로 회복
싱가포르	10.9%	26.0%	대지진 직후에는 일본계식당의 타격이 심했으나 회복단계	일본산 식품수요가 많이 회복되어 정상수준 입점 및 판매중임
미국	5.7%	12.8%	한국인 51%, 영어권 77% 일본산이 안전하다고 응답	포장용기 공급업체는 9월 이후 공급량원상회복
EU	△2.2%	2.5%	-	-

- 주요 수출국별 한국산과 일본산의 수입동향을 비교해 보면 일본산 감소와 더불어 한국산 수출이 대폭 늘어난 국가는 중국, 홍콩이고 대만, 싱가포르,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산 대지진으로 인한 수입규모 감소 없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① 중 국

- (일본산 수입) 연어, 조제식료품, 냉동어류, 소스류, 유아용 식품, 간장 등 대부분 일본산 품목이 수입 감소

중국의 농수산물식품 수입액(일본, 한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율
일본	445.6	593.3	349.7	△41.06
한국	311.8	420.0	633.8	50.9

자료 : 중국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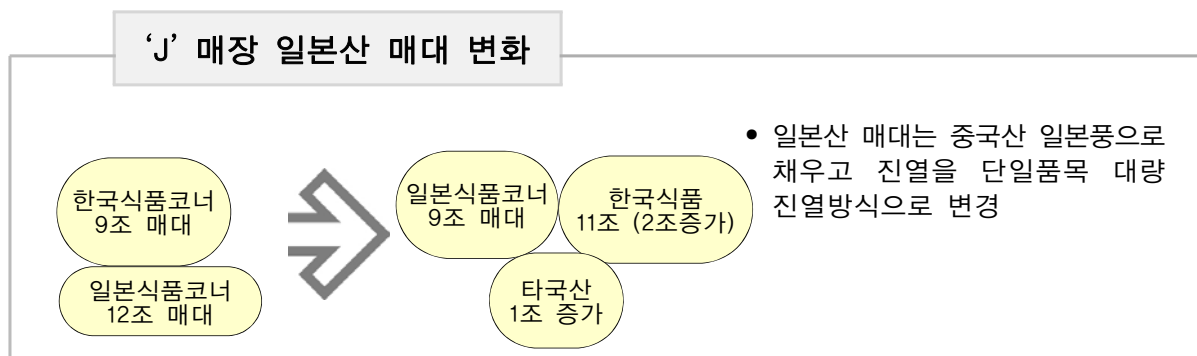
- (일본산 취급비율) 바이어, 경소상, 유통업체 등 대부분 일본산의 취급 비중이 감소하였음

바이어 및 유통업체	일본산 취급 품목 및 비중		
	(사고 전)	(현재)	증감
심천 일본식품 바이어	2,000여개	100여개	△95%
호남성 창사 경소상	1,000여품목	400~500여개	△50%
중국최대 일본식품 바이어	4,000여품목	1,000여개	△75%
화동 대형유통매장 체인	4%	0.1%	△97%
백화점 수입식품매장	40~45%	25~30%	△40%

- (일본산 대체현황) 일본산 대체 원산지는 유럽, 미국, 한국, 동남아 등

- 청주, 된장, 간장 등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일본품 중국산 현지 상품으로 대체

- 스낵류, 음료류, 면류는 대부분 타국산으로 대체됨
- 한국산중 일본산 대체가 유망한 품목은 유아식품, 수산식품, 소스류 등임



② 홍콩

-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은 수출이 증가하고 유제품이 가장 크게 감소 ($\Delta 55.8\%$)하고, 신선어류, 과일, 쇠고기, 우유 등 신선품의 수출이 감소

홍콩의 농수산물식품 수입(일본, 한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율
전체	13,587	15,872	18,619	17.3
일본	717	966	944	$\Delta 2.3$
한국	152	200	244	21.8

자료 : 홍콩 무역국

- (일본산 대체) 한국산 농식품의 선호도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우려로 대체식품으로 어느정도 주목을 받았으나, 고품질·고가품으로 자리잡은 일본 식품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선호도는 다소 하향
- 한국산은 타 주요 수입국에 비해 물량이 매우 적고 시장진입 단계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분유) 유아용 분유는 민감한 제품으로 일본산 일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후 수입이 금지되고 소비자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일본산 대체품으로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산 분유가 증가세임
- (가리비,굴,전복) 일본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었으나 원전사고이후 재고부족으로 호주, 미국 알래스카산을 대체품으로 이용
 - 특히, 일본산 건전복, 건굴은 홍콩에서 매우 선호도가 높음
 - 한국산 건전복, 건굴은 일본산에 비해 크기가 작아서 식당보다 주로 가정에서 소비가 되고 있음
- (과채류) 신선·건조의 과채류는 타국산에 비해 일본의 신선과일 수입비중은 낮은 편, 홍콩으로 수입되고 있는 한국산 과일은 아직 많지 않으며, 단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고 있는 추세임
 - 딸기의 경우 한국산 출하시기에 시장점유율 1위로 일본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맛과 품질이 안정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

③ 대 만

- (일본산 수입) 일본산 수입이 증가하고 선호도는 큰 변화가 없음
 - 대만은 역사적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일본기업, 문화, 식품 등이 대만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일본산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매우 강한 편임

대만의 농수산물식품 수입(일본, 한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율
전체	10,071	12,759	14,842	16.3
일본	683	770	832	8.0
한국	114	155	178	14.8

자료 : 대만행정원 농업위원회

-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은 증가추세로 원전사고 여파로 신선과일 품목이 감소하고 수산가공품(대만 합작기업) 수출이 증가함
 - 대만 소비자들도 무조건적인 일본 농수산물 거부 반응보다는 다소 침착하게 대만 정부의 검역 결과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음
- (사과) 일본산은 19.7% 감소하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수입이 증가함
- 일본산은 주로 고급매장에서 고가로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저렴한 일본사과가 수입되기도 함
- (라면) 대만 라면시장은 전년대비 27.4% 성장하였으며 일본산은 대폭 감소(물량 23.9%)하고 한국산은 증가(물량 17.1%)를 보임
- (신선어류) 일본산식재료를 사용하던 식당에서는 대만 국내산과 노르웨이, 동남아 등으로 일부 대체되고, 건조 수산물은 캐나다 등으로 대체되고 있음. 원전사고 인근 5개현에서 수입되던 품목이 일본내 여타 지역산으로 대체되어 전반적인 일본산 사용에는 차이가 없음

④ 싱가포르

- (전제수입) 2011년 농수산식품 수입은 전년대비 26% 상승한 128억달러

싱가포르 농수산식품 수입(일본, 한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증감률
전체	10,150	12,806	26.2
일본	316	350	10.9
한국	73	92	26.0

자료 : www.gtis.com

■ (일본산 수입) 농산물, 수산물은 물량 대폭감소, 가공식품은 수입증가

- 2011년 대지진 직후 일본계 식당들은 매출이 30~50% 급감하고 유통업체의 국제식품코너 일본제품 매대가 40% 감소하고 대만, 호주산이 대체. 싱가포르의 일본산 식품수입은 수입 금지된 현에만 해당
- 2012년 3월 FairPrice 담당자에 따르면, 원전사고 1년이후 일본산 식품수요가 많이 회복되어 정상수준으로 입점하고 판매중임

■ (대체효과) 소비대체 효과보다 지속적인 한류로 한국산 수입 증가

- 간장, 메론, 가공식품, 수산물(고등어, 넙치 등)등의 일부 품목 대체

(단위: 톤)

	2011년 일본산 수입		비 고
	물 량	증 감	
간 장	697	+ 15%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45% 증가 - 경쟁국 : 태국 39% 증가, 대만 25% 증가
고등어	20	+ 7%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45% 증가 - 경쟁국 : 노르웨이 1,216% 증가, 필리핀 314% 증가
김 류	50	△ 41%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43% - 경쟁국 : 중국 81% 증가, 태국 87% 증가
넙 치	0.2	△ 37%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133% 증가 - 경쟁국 : 인도네시아 68% 증가, 태국 6% 증가
드링크류	2,980	+ 358%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15% - 경쟁국 : 인도네시아 105% 증가, 호주 73% 증가
딸기류	9	△ 7%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19% - 경쟁국 : 미국 31% 증가, 뉴질랜드 15% 증가
멜 론	14	△ 20%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73% 증가 - 경쟁국 : 미국 296% 증가, 대만 10,456% 증가
면 류	480	△ 43%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13% 증가 - 경쟁국 : 호주 89% 증가, 미국 108% 증가
비스킷류	229	△ 13%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16% 증가 - 경쟁국 : 필리핀 180% 증가, 이태리 107% 증가
오징어	3	△ 32%	- 한국산 : 전년도 대비 △41% - 경쟁국 : 인도네시아 186% 증가, 프랑스 164% 증가

자료 : GTA, IE Singapore

⑤ 미 국

- 2011년 미국의 농수산물식품 수입은 1,264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
- (일본산 수입)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수입은 5.7% 증가하여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고 관자, 과자류, 생수, 국수류, 간장 등 일부품목에 한해 감소
 - 한국산은 12.8% 증가하여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가공식품, 활어류가 소폭 감소하였음

미국 농수산물식품 수입(일본, 한국, 중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률
농수산물	94,641	107,991	126,419	17
일본	767	807	853	5.7
한국	345	404	456	12.8
중국	7,212	8,503	9,224	8.48
수산물	13,588	15,064	17,141	13.79
일본	249	235	257	9.36
한국	95	102	120	17.65

자료 : USDA

- (일본산 유통) 미 동부지역 일본식품 유통회사에 따르면 원전사고 이전의 매출 전망으로 회복기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음
 - 간장, 라면, 우동, 나또, 맥주, 사케는 미국현지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는 일본산 라벨의 경우 지역표시가 안되어 있어 현지인은 구분이 어려우며, 일본브랜드도 생산지가 중국,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있음
 - 일본식품매장에 포장용기를 공급하는 업체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주춤하다가 9월 이후 포장용기 공급량이 원상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회복세는 뚜렷함
 - 유통업체는 현재 일본제품 판매와 매출에 큰 변화가 없으나 향후 유사 문제 발생을 대비한 대체상품을 탐색하는 수준임

⑥ E U

■ 2011년 농수산물식품 수입은 1,525억 달러 전년대비 19.3% 증가

EU 농수산물식품 수입(일본, 한국, 중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율
농수산물	122,354	127,898	152,581	19.3
일본	234	268	262	△ 2.25
한국	162	177	181	2.55

자료 : www.gtis.com , EU 공식집계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일본산 수입)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수입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2.2%)

-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가공식품, 간장 및 소스류, 관자, 관상어, 종자, 녹차 등으로 일부품목(관자, 이스트, 베이커리류 등)이 소폭감소하고 대부분 증가하였음
- 일본산 농산물중 건조야채(금액 △20.2%, 물량 △32.7%), 건조버섯(금액 △3.1%, 물량 △35.1%), 신선/냉장 야채(금액 △86.4%, 물량 △93.9%) 수입이 대폭 감소함
건조야채는 중국, 터키산, 건조버섯은 중국, 인도산, 신선 야채는 케냐, 세네갈, 터키산이 소폭 증가함. 그 외 과일, 건조과일 등은 수입물량이 소량이라 비교가 어려움
- 일본산 수산물은 관상어류(금액 △1.1%), 해조류(금액 △17.1%, 물량 △29.4%), 어유(금액 △15.1%, 물량 12.4%) 수입금액이 감소함
해조류는 필리핀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어유는 수입단가 상승으로 물량은 증가(12.4%)하고 금액은 감소(△15.1%)
- 유럽에서 한국산과 일본산은 시장점유비중이 낮아 일본산을 대체한 한국산 점유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부 록

1



‘10 ~ ‘11년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동향

일본의 주요 농산물 수입동향

(금액단위 : 백만엔)

구 분	단위	2010		2011		증감율		주요 수입국(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천톤	25,588	608,669	25,164	768,462	△1.7	26.3	미국 540,957	호주 87,051	캐나다 65,145
- 밀	천톤	5,476	145,995	6,214	215,759	13.5	47.8	미국 121,144	캐나다 50,780	호주 43,193
- 옥수수	천톤	16,188	346,373	15,285	426,415	△5.6	23.1	미국 384,267	브라질 23,400	아르헨티나 12,157
- 쌀	천톤	664	45,293	742	46,553	11.7	2.8	미국 27,042	태국 13,930	호주 3,465
과실류	톤		348,533		373,201	1.8	7.1	미국 83,235	필리핀 82,448	중국 65,740
- 포도(신선)	톤	12,625	2,754	15,410	3,500	22.1	27.1	미국 1,811	칠레 1,633	멕시코 38
- 밤(신선,건조)	톤	12,625	4,598	11,690	4,505	△7.4	△2.0	한국 2,281	중국 2,204	이태리 20
- 딸기(신선)	톤	3,259	2,666	3,395	2,730	4.2	2.4	미국 2,424	한국 298	멕시코 7
- 감귤류 (신선,건조)	톤	10,908	1,444	21,317	2,686	95.4	86.1	미국 2,065	호주 286	뉴질랜드 243
채소류	톤		345,136		367,547		6.5	중국 191,341	미국 65,820	태국 17,392
- 수박	톤	799	101	3,055	298	282.4	194.8	미국 158	멕시코 72	한국 67
- 양배추	톤	23,368	860	27,025	849	15.7	△1.3	중국 674	대만 88	한국 86
- 배추	톤	149	6	757	31	407.3	431.5	한국 16	중국 15	-
- 기타버섯	톤	396	267	609	328	53.9	22.9	한국 143	이태리 61	프랑스 58
- 파프리카	톤	25,411	9,442	26,765	9,849	5.3	4.3	한국 5,632	화란 2,611	뉴질랜드 1,605
- 토마토	톤	2,971	1,042	2,963	925	△0.3	△11.2	한국 532	미국 183	멕시코 76
- 표고버섯	톤	5,616	1,423	5,321	1,382	△5.2	△2.9	중국 1,374	한국 8	-
- 채소주스	톤	36,045	8,429	47,793	11,095	32.6	31.6	미국 4,588	호주 2,403	뉴질랜드 1,743
- 시금치(냉동)	톤	27,088	3,226	33,443	4,135	23.5	28.2	중국 3,402	대만 338	베트남 206
주류	KL	536,444	175,633	648,697	190,220	20.9	8.3	프랑스 70,394	한국 27,633	영국 18,107
- 맥주	KL	29,429	4,572	42,370	5,411	44.0	18.3	아르헨티나 1,330	한국 930	멕시코 576
생수	KL	418,975	23,352	589,575	28,297	40.7	21.2	프랑스 17,622	미국 5,432	한국 1,504
유채씨유	톤	9,048	1,178	32,191	4,072	255.8	245.6	캐나다 2,643	호주 886	독일 121
절화	톤	43,574	30,771	43,558	29,410	0.0	△4.4	말레이시아 8,052	콜롬비아 5,217	대만 3,010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일본의 최근 3개년 수산물 상위품목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엔, %)

품 목	2009		2010		201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새우(조제)	64,699	51,701	70,650	54,156	76,707	62,090	8.6	14.6
게	63,948	46,519	49,188	47,187	49,102	59,832	△0.2	26.8
오징어	78,028	34,141	78,344	38,236	89,949	42,043	14.8	10
오징어(조제)	44,519	16,980	44,151	17,998	48,280	22,982	9.4	27.7
낙지	56,196	27,821	44,681	25,615	38,358	28,174	△14.2	10
게	13,852	21,507	13,245	18,167	13,696	20,713	3.4	14
미역	24,848	6,666	25,595	6,804	42,685	11,599	66.8	70.5
전복	1,683	5,415	1,854	5,796	2,027	6,579	9.3	13.5
시샤모	23,707	6,189	22,177	4,915	23,646	5,499	6.6	11.9
굴	2,900	1,574	4,201	2,476	5,230	3,178	24.5	28.4
건조 김	260	522	475	828	868	1,462	82.7	76.5
패주	534	603	598	683	897	1,027	49.9	50.4
꽁치	85	18	3,395	430	5,338	773	57.2	79.6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일본의 주요 수산물 국별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엔, %)

구 분	2010	2011	증감률	2011년 주요국 수입(금액)					
	금액	금액		1위국		2위국		3위국	
참치	172,156	184,037	6.9	대만	35,166	한국	25,751	인니	18,186
꽁치(냉동)	430	773	79.6	대만	676	한국	85	중국	11
오징어	38,236	42,043	10.0	중국	13,113	태국	12,083	베트남	6,110
전복	5,796	6,579	13.5	한국	4,376	호주	1,250	중국	388
굴	3,178	2,476	28.3	한국	2,925	뉴질랜드	117	미국	53
패주	683	1,027	50.4	한국	745	중국	263	필리핀	19
김	828	1,462	76.5	한국	1,152	중국	310	—	
툰	3,425	3,432	0.2	한국	2,516	중국	915	—	
미역	6,804	11,599	70.5	중국	8,570	한국	3,027	아르헨	2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일본의 최근 3개년 주요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톤, 백만엔)

구 분	2009		2010		2011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과자류	25,794	23,508	27,737	25,872	24,061	23,070	△13.3	△10.8
주류	44,290	15,399	49,591	17,857	56,507	19,038	13.9	6.6
사과	20,929	5,416	21,075	6,409	18,205	6,500	△13.6	1.4
녹차	1,958	3,422	2,232	4,242	2,387	4,716	6.9	11.2
분유	8,856	12,416	9,438	14,163	3,380	4,726	△64.2	△66.6
간장	20,755	3,965	20,088	3,969	18,873	3,651	△6.1	△8.0
배	1,683	679	702	358	574	298	△18.1	△16.8
포도	403	465	319	425	187	277	△41.6	△34.8
복숭아	514	461	494	453	280	259	△43.3	△42.9

자료 :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일본의 최근 3개년 주요 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톤, 백만엔, %)

품 목	2009		2010		2011		증감률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량	금액
가다랑어/다랑어류	52,741	11,901	79,767	13,564	69,437	12,905	△13.0	△4.9
: 가다랑어	21,830	2,191	62,332	7,266	46,798	8,797	△24.9	△23.7
건조해삼(조제)	249	9,733	209	12,788	195	11,784	△6.5	△7.9
가리비	12,452	14,276	13,709	10,286	10,255	11,269	△25.2	9.6
패주(조제)	2,353	10,335	2,648	12,385	1,983	9,428	△25.1	△23.9
고등어	84,052	7,490	120,416	10,073	97,947	8,787	△18.7	△12.8
오징어	27,842	3,508	31,352	4,860	39,904	7,869	27.3	61.9
방어	3,510	5,513	4,140	6,570	5,084	7,761	22.8	18.1
연어/송어	55,587	13,103	65,166	17,978	22,404	6,700	△65.6	△62.7
연육제품(어육소시지 등)	6,935	5,480	7,321	5,609	7,071	5,145	△3.4	△8.3
명태	74,469	9,459	63,478	7,733	40,082	4,156	△36.9	△46.3
전복(조제)	32	1,803	36	2,318	31	2,432	△13.3	4.9
공치(냉동)	75,436	4,968	60,382	5,132	13,292	1,407	△78.0	△72.6
멍게	7,318	1,555	7,277	1,453	990	216	△86.4	△85.2
건조다시마	601	790	601	810	436	667	△27.4	△17.6
대구	3,840	1,195	5,531	1,115	3,933	888	△28.9	△20.3
가다랑어류(통조림)	140	125	60	66	195	141	223.2	114.8
다랑어류(통조림)	660	525	547	487	470	377	△14.0	△22.5
고등어(통조림)	3,389	1,263	2,860	1,066	1,584	553	△44.6	△48.1

자료 :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단위 : 천톤)

구 분	2011 수입 물량		시장규모 / 경쟁력 비교 / 수출확대 방안
	일본산	한국산	
간 장	697	105	* 시장규모 : 6,732톤 - 한국산이 일본 간장의 대체품으로 꾸준히 상승 중 - 중국계 간장을 생산하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는 한계 - 현지인 입맛에 맞는 신규 상품의 개발 필요
고등어	20	5	* 시장규모 : 6,686톤 - 일본 제품에 비해 우수한 맛과 가격으로 꾸준히 상승 - 최대 경쟁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칠레(4,646톤) 및 중국(1,513톤) 임 - 리테일 유통보다는 식자재 유통시장으로 접근
김 류	50	27	* 시장규모 : 505톤 - 전통적 강국인 중국(212톤) 이외에 신흥세력인 태국(78톤), 인도네시아(119톤)에 일본, 한국 양국 약세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고 있어, 무리한 가격경쟁 보다는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 - 한국산 조미김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여 통일된 한국 조미김에 대한 브랜드 개발 시급
넙 치	0.2	0.2	* 시장규모 : 107톤 - 틈새시장으로 인도네시아(95톤)가 독식 중 -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홍보 및 해산물식당수요 발굴
딸기류	9	996	* 시장규모 : 3,038톤 - 한국은 2위 규모를 기록 중으로, 최대 경쟁국은 미국(1,449톤), 한국산 딸기 수출시즌에는 부동의 1위 확보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 및 품질저하 방지
멜 론	14	111	* 시장규모 : 13,654톤 - 고급제품시장 일본산을 2009년도 후반에 한국산이 추월 - 경쟁국은 호주(2,178톤) 및 말레이시아(5,681톤), -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맛)로 고급 과실류 시장 확대필요

면 류	480	912	* 시장규모 : 12,342톤 - 일본산의 2011년도 쇠락으로, 한국산이 일부시장을 확대 - 유사한 면을 생산하는 대만(285톤) 및 중국(3,018톤) 또한 일본산 시장을 일부 획득하였음 - 최대의 경쟁국은 일본 기술 및 입맛에 심혈을 기울이고 시장 확대를 노리는 태국(958톤) 임 - 대부분의 유통매장에 한국산 면류는 입점 판매 중이나 특별한 프로모션 없이 상시 판매중임
오징어	3	0.4	* 시장규모 : 3,263톤 - 주요 공급국가는 말레이시아(3,212톤) 로, 전체 물량의 87% - 한국 및 일본의 오징어는 크기가 크고 딱딱한 편 - 말레이시아산은 크기가 작고, 말랑하여 요리하기가 편리함 - 한국산은 주로 식자재 납품용으로 수입 중
쌀	541	116	* 시장규모 : 전체 339,425톤(단립종 쌀 : 추정 1,500~2,000톤) - 단립종은 경쟁국은 미국 (약 755톤, 대표 브랜드 : Calrose) 및 호주(약 206톤, 대표 브랜드 : Sunrice) 임 - 대형유통매장에는 현재까지 가격 등의 문제로 진입 지난하나, 한인, 일본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중
신선/ 냉장 어류 (참치 포함)	208	8	* 시장규모 : 43,208톤 - 일본의 원양어선들은 대지진과 관계가 없으나 일본 자체의 수급 및 “일본산”의 기피현상 등으로 감소함 - 일본어선에 의한 참치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동일 어로지역 국가들인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의 물량이 증가 - 인접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어획 물량은 기존의 일본산 공급시장에 주력 중 - 한국산 어류는 대부분 식자재 납품용으로 수입중이며, 향후 일반 리테일 소비시장으로의 진입 필요

자료 : GTA, IE Singapore, AFP, FAS

- 도쿄전력에 따르면 3월1일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는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나오고 있으며, 2~3호기는 고방사선량으로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2호기는 격납용기 수심이 낮아 핵연료 노출 우려도 발견된 상황 4호기에 저장되어 있는 1,500여개의 핵연료를 꺼내는 작업도 수조붕괴 가능성도 있어 쉽지 않을 전망
- 원전사고 후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배출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바닥에 쌓여 있는 고동도 세슘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년 2월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는 작업을 시작하는 등 오염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오염과 추가 오염 가능성 위험은 도처에 산재함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상황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연료봉	연료봉 용융 대부분 파손	연료봉 용융 일부 파손	연료봉 용융 일부 파손	지진당시 점검중이어서 연료봉 없음
압력용기와 격납용기	녹은 연료봉이 깨진 압력용기에서 새어나와 격납용기 바닥에 침전, 일부는 격납용기 바닥까지 뚫고 나온 것으로 추정			양호
사고수습현황	폭발당시 천장이 무너져 건물전체에 커버를 씌움	원자로 건물은 손상 없으나 내부 격납용기 파손이 추정되 조사중	폭발 잔해물 철거 작업중	
원자로내 방사능수치 (시간당 밀리시버트)	25~5000	5~430/ * 31,100~72,900 (도쿄신문, 3.28)	10~1600	0.1~0.6
방사능 오염수(만톤)	1.4	2.2	2.29	1.76

자료 : 도쿄전력, 동아일보(2012.3.7, 3.29)

aT Focus

2011. 1. 28 창간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4월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 1399 / info1@kati.net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해외aT센터에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교역동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